

광주일보 창사 65주년 기념 '정명화·손열음·신지아 트리오' 공연 성황

# 앙상블 진수 빛난 열정의 무대 행복했던 '봄날의 추억'

드보르작 '뚝키' 등 연주...1600명 관객 환호  
"관객들 집중도 좋아 몰입해 연주할 수 있었다"



연주회를 마치고 환하게 웃고 있는 신지아·손열음·정명화씨. <왼쪽부터>

역시 거장들의 무대는 달랐다. 지난 28일 광주문화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정명화·손열음·신지아 트리오' 공연은 앙상블의 진수를 선보인 열정적인 무대였다. 이날 1600석 객석을 가득 메운 클래식 팬들은 화려한 기교와 파워풀한 에너지, 40년이 넘는 나이 차를 뛰어 넘은 완벽한 호흡을 보여준 세 명의 연주자들과 함께 봄날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다.

광주일보사 창사 65주년, 호남예술제 62주년 기념공연으로 기획한 이번 무대는 일직감치 표가 매진되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광주에서 유명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는 클래식 공연이 거의 없었던 터라 클래식 팬들의 기대는 남달랐고, 공연은 그 기대가 틀리지 않았음을 입증했다.

솔로로, 듀엣으로, 트리오로 다양한 무대를 선보인 이날 공연의 첫 곡은 신지아·손열음이 함께한 모차르트의 '바이올린과 피아노 소나타 21번 E단조'가 장식했다. 모차르트 음악 특유의 아름답고 서정적인 멜로디를 완벽한 호흡으로 풀어내 많은 박수를 받았다.

정명화와 신지아가 함께 연주한 두 번째 곡 코다이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듀오 작품 번호 7'은 다양한 기교와 파워 넘치는 에너지로 관객들을 압도했다.

손열음의 독주곡 하이든의 '피아노 소나타 F장조'에 이어 마지막 곡인 드보르작의 '트리오 피아노 4번 뚝키'가 공연됐다. 세 사람이

함께 호흡을 맞춘 '뚝키'는 애조 띤 아름다운 멜로디를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가 서로 배려하고 대화를 나누듯 들려왔다.

관객들의 환호가 이어지자 세 사람은 멘델스존의 '피아노 트리오 D단조 2악장'을 앙코르로 선사했다.

공연 후 만난 신지아씨는 "공연장을 찾아 주신 청중분들이 너무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서 우리도 그만큼 몰입해 연주할 수 있었다"며 "특히 정명화 선생님이 젊은 시절 동생 정명화 선생님과 연주했던 코다이의 곡을 제가 오늘 연주할 수 있었던 건 어메이징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전주 출신으로 초등학교 시절 첫 콩쿠르로 호남예술제에 참여하기도 했던 신씨는 호남예술제가 100회가 되면 심사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싶다고 웃었다.

손열음씨는 "선생님과 연주할 때는 언제나 친구처럼 대해주셔서 전혀 세대차를 느낄 수 없다"며 "외기가 광주인데, 광주에 올 때마다 늘 행복한 마음으로 연주하고 오늘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이날 클래식 모임 회원들과 공연장을 찾은 조운식씨는 "각 곡마다 연주자들의 특색을 접할 수 있어 좋았다"며 "특히 난해한 코다이의 곡은 정명화씨가 노련하게 받쳐주면서 신지아씨의 바이올린 연주가 더욱 돋보인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일보가 창사 65주년 기념으로 주최한 '정명화·손열음·신지아' 트리오 콘서트가 28일 광주문화예회관에서 열렸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28일 광주문화예회관에서 열린 '정명화·손열음·신지아' 트리오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의 모습. 이날 공연에는 1600명의 관객이 입장했다.

## 작품마다 가격표... '예술품 쇼핑' 오세요

### 광주 롯데갤러리 5월 3일까지 '백화점(百畵點)'전

광주 롯데갤러리가 31일부터 5월31일까지 'Shopping my art collection 백화점(百畵點)'전을 연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백화점 상품처럼 작품마다 가격표가 붙여있어 쇼핑을 하듯 부담없이 둘러볼 수 있는게 특징이다. 국내외 현대미술 작가들의 회화·조각·사진·판화 등 작품 40여 점을 선보인다.

천경자·강익중·박서보·이우환·이탈종 등 유명 작가부터 김동유·김수영·문형태·이병호 등 중견 작가 작품이 폭넓게 전시된다.

토속적 색채와 크게 강조한 얼굴 표정이 인상적인 천경자 작가의 1989년작 '마사이족 KENYA' 판화(67x 50cm)는 270만원에 판매한다.

또 이우환 작가의 1986년작 'In the Ruin' 판화(48x39cm)는 650만원, 박서보 작가의 1995년작 '묘법 No.950526'(16x 22cm)은 1500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최고가는 김동유 작가 작품이다.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 얼굴을 모자이크 형식으로 그려 마릴린 먼로 얼굴을 표현한 회화 'Marilyn Monroe(John F. Kennedy)'(91x73cm)는 4000만원이다.

서울 로데오거리, 지하철역 등에서 만날 수 있는 김경민 작가의 조각도 출품된다. 작품 '산책하기 좋은날'(2015·30x 33x6cm)은 160만원이다.

또 무라카미 다카시, 타카노 아야 등 일본 인기작가 판화와 쿠사마 야요이·출리안 오피 아트상품을 만날 수 있다. 무라카미 다카시의 'Flower Ball (3D Autumn)'(71x71cm)은 250만원, 요시토 모나라의 'Pup Cup'은 60만원, 야요이 쿠사마의 'Pumpkin'은 60만원이다.

그밖에 테미안 허스트의 'For the love of god' 판화는 1500만원, 제프 쿤스의 'Balloon Dog'은 1600만원에 소장할 수 있다. 문의 062-221-1807.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이탈종 작  
'재주생활의 중도'

### 전남문화관광재단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내달 개교

전남문화관광재단은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인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4월1일부터 연다.

올해는 15개 시·군에서 지역 문화자원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전남형 문화예술교육체 프로그램 40개가 운영된다. 섬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비롯해 농촌체험, 생태자원과 접목한 놀이프로그램, 연극, 공연, 복합미디어 프로그램 등 다채롭게 준비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섬마을을 스토리텔링해 랜드마크를 만들어보는 '예술로 꿈꾸는 아일랜드(Island) 아이들 랜드'(씨네로드), 음악으로 마을 이야기를 표현하는 창작활동프로그램 '라이징스타'(라이징스타), 자연 탐험프로그램 '숲속에서 살아남기'(섬진강 도깨비마을) 등이다.

참가비 무료. 홈페이지(www.jact.or.kr) 참고. 문의 061-580-5848.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M갤러리 대관안내**

- ▶ 기본대관기간 : 7일(일주일 단위)
- ▶ 실 전시 벽면 길이 : 약 46 M
- ▶ 개관시간 : (평일) 09:00~18:00 (토일) 10:00~17:00
- ▶ 신청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http://jinhan-shona.blog.me>

**아프리카 신나조각**

양근르전시회

- 500여점 전시 -

■ 장소: 세계조각·장식박물관 상설전시장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062) 222-0072, 226-5800  
(구, 카톨릭센터 뒤 관남면 18)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 혜은이 디너쇼

**2017.04.11.(화) 19:00**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볼룸

15세 미만은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입장 18:40 / 식사 19:00 / 공연 20:00 / 퇴장 21:40

165,000 원 (VAT포함)

**Hye Eun Lee**  
2017 Dinner Show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